

이렇게 들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가정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운 실정을 또개고 남편에게 힘이 돼 주어야 하는 아내들의 가슴도 멍들어간다. 아이들의 표정도 어둡게 바뀌어간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가정의 단란함마저 깨뜨리고 있다.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낀 남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난을 비판해 가혹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인식체다. 한핏줄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 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전의 말씀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겨보자.

(편집자 주)

■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 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서정숙하며 중요하지 않더라도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 능히 신앙을 지녀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홍경>

■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다.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중일아함경>

■ 가정 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족들은 개미와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식구에게 의존하거나 자선을 기대하면 안된다. 아무

가족화합 고락 나누며 서로 걱정해주라

도 재가 벌어들인 것을 다 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다른 식구에게 나누어 주고, 열마음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열마음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열마음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육방예경>

■ 정숙하고 여진 아내는 집안에서의 좋은 벗이며, 스스로 닦은 선행의 공덕이 내생에서의 좋은 벗이니라. <별역잡아함경>

■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환한을 품지 않으며, 만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않으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 아내는 마땅히 열네가지 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열네 가지란 무엇인가? 행동을 착하게 하며, 선을 실천해 이루며,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 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여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선생자경>

■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종에게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두려워하여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그림 · 이준석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③· 끝

나 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인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교만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내가,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공부한 내가 이제 무슨 공인가.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그래, 나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다시 일어나 보자." 그곳에서 사흘동안 관세음보살 정경을 하고 상월 큰스님을 받고 여러가지 상담을 한 뒤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관음정경을 시작했지만 다시 믿음 반, 의심 반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기도가 이어졌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내 몸은 점점 지쳐갔다. 절실한 기도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믿음보다는 아프고 괴로워서 오기로 하다가 눈물로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나본데 이렇게 꿈 속에서 상월스님을 친견하고 단박에 건강을 찾은 것이다.

항상 소화가 안되고 손발도 얼음장 같은 내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인 듯 따뜻해졌다. 다시 건강을 찾은 나는 한라산도 두번이나 등반을 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에도 올라갔다.

그 후 난 신앙은 이뿐만이 아님을 알았고 이제는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지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든 일이 잘 비껴가 쥘기도 한다.

그러나 1983년 대동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관철에 이상이 생겨 아이들과 운동도 못하고 오래 걸지도 못하여 팔팔맨 적이 있었다. 대전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한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다시 괴롭게 지내던 차에 일간 '해인'지를 보니 성철스님의 법문에 '해인 회원은 한 주에 한 번은 꼭 108배를 하십시오'하는 말씀이 있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하고 연수원 법회가 끝나면 천천히 올라가 조심조심 108배를 시작하였다.

관절염에 108배는 아주 나쁘다고 모두 말렸지만 조심조심 열심히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관절에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아 병원에 뛰어가 진찰해보니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두번이나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일어난 사람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종교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웃에게 남모르게 보시도 하고, 작은 일에도 기쁘게 참여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 인욕하면서, 분수에 맞게 계율도 지켜 조심스럽게 생활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명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가족에게 쓰는 편지



■ 아내가 남편에게

"10년전 실직고통 이겨냈듯 IMF때도 용기 잃지 마세요"

매일 저녁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당신에게 선편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지지 못했습니다. IMF 감원한파로 직장 동료들이 떠나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는지. 힘들다는 내색을 안하려고 무뎠던 애쓰는 당신에게 이렇게 한 조각 글로나마 우리 가족의 사랑을 전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써본지도 꽤 오래 전 일이군요.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요? 그때 당신은 참으로 편지를 자주 쓰던 감성적인 남자였어요. 그런 감성을 지녔던 당신이 생활에 쪼들리고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 시들어가더군요.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을 보며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이 마음은 언제든 한결같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10년 전 당신이 실직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제 마음이 이런데 당신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싫다는 당신을 끌고 남대문 새벽시장이며 동대문 시장 등을 돌아다녔던 때가 눈에 선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드렸죠.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내 다시 새 일자리를 찾았던 당신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실직의 아픔도 이겨냈잖아요.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운내요. 당신 곁엔 부처님 가피와 우리 가족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할테니까요. 이지혜성(서울 광진구)



■ 실직아버지가 자녀에게

"무능하고 초라한 느낌 들지만 겸허하고 슬기롭게 재기 노력"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했던 나뭇가지엔 싱그러움 불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윽한 꽃향기마저 내뿜는 풍경을 볼 때 우주의 신비함을 새삼 경탄케 하는구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 5월은 우선 너희가 이 세상에 따뜻한 햇살을 받고 축복 속에 태어난 달이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함께 놀아주기를 떼쓰며 보채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둘다 대학생이 됐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도 하구나. 요즘 너희 남매가 각자 생활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

면 이 아버지는 왠지 무능하고 초라한 느낌마저 들 때가 많다. 게다가 너희들의 율타리가 되어주고 굳건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속죄해 이해해 주려는 너희의 마음을 가늠하고 대경스럽게까지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국가, 사회적으로나 우리가정의 실정에서도 현재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다. 이때를 계기로 우리

각자가 자기분수를 알고 겸허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과거 중고시절 아버지가 이런저런 과잉관심으로 너희와 한때 갈등을 빚었던 점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대개의 가정에 흔히 있는 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아버지도 어렵고 힘들지만 한국불교종단합이 실직자를 위해 마련한 오투기 모임터에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며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감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사회가 전망된다고 한다.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동시에 건강에 항상 유념해 주라.

두 남매의 아버지 안성근(서울 강남구 역삼동)



■ 아들이 아버지에게

"작아보이는 뒷모습 가슴 아파 사랑스런 가족보며 힘내세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는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얼마 아버 얼굴에 내려 앉은 어둠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동생과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만했어. 제가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야단맞고 야속해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아버의 뒷모습이 작아지는지, 왜 그렇게 아버의 어깨가 내려 앉는지. 아! 우리는 한가족이잖아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아빠 엄마의 힘든 일을 나눌 수 있을만큼은 컸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아버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셨잖아요. 이제 장남인 제가 아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게요. 얼마 전에 <부모모은중생>을 읽었어요. 부처님께서 부모님 은혜를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아빠 힘내세요. TV를 보면 우리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집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건강도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매일 가족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메다니시면서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봐요. 아버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집을 훌쩍 떠나버리는 가정들도 많았는데 아버는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아버의 얼굴에 하루속히 환한 미소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버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아버가 큰스님 법문을 듣고 영물을 들으면서 웃음을 찾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아빠 파이팅!
이종희(경북 영덕 김구중 3)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팀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에는 무료음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팀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은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